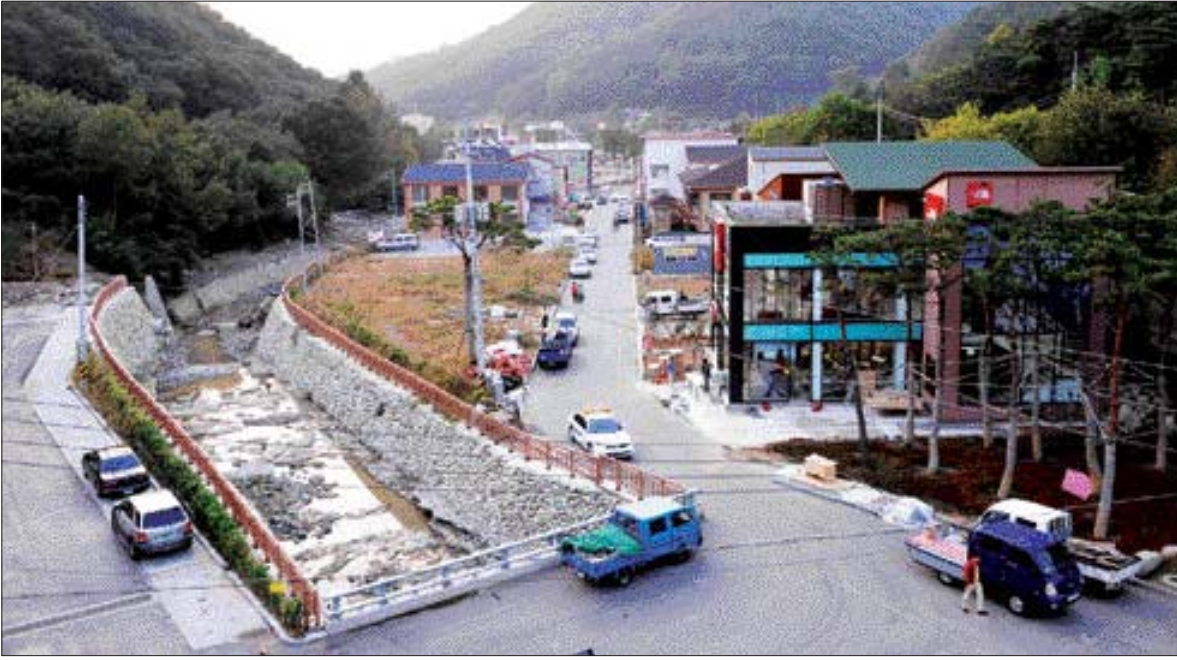


사회

광주 '사회적 기업' 한마당

17일 상무시민공원 ... 체험·전시·판매 행사



7년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불법 건축물이나 지장물이 사라지고, 하천, 도로 등이 말끔히 정비된 중심사 지구에는 등산장비점과 식당 등 상가들이 속속 들어서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경제살리기운동본부(위원장 이민원)와 광주·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대표 김윤기)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널리 알리고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광주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광주 사회적 기업 한마당'을 개최한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76개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낮은 편이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고 사회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도 단순 전시에서 벗어나 시민이 사회적 기업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장애인·간병서비스 등의 '사랑'과 음식을 만드는 단체 중심의 '맛', 문화단체들의 '전통놀이', 교육단체의 '교육', 무돌아트컴퍼니 등 미술단체의 '미술체험', 환경단체의 '환경' 등 6개

테마로 나눠 분야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광주지역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사회적 기업 페어(Fair)', 관계 기관 부스 운영, 공연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

광주경제살리기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최근 경제위기와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로 벼랑 끝에 몰린 동네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23일 오후 4시 광산구 첨단2동 내촌마을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동네경제 살리기 주민 한마당'도 개최한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영리기업이 아닌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증심사지구 "확~ 달라졌네"

불법 건축물 철거·숲 속 주차장·하천 정비...복원 연말 마무리

건축물 높이·배치·옥외 광고물 규제로 난립 막아

1972년 공원으로 지정된 뒤 우후죽순처럼 늘어선 무허가 건축물들이 난립했던 무등산 증심사지구가 37년 만에 제 모습을 되찾았다.

광주시는 14일 "올 연말까지 무등산공원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무등산공원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현 공정은 90%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2002년 사업에 착수한 시는 1단계로 지난 2007년까지 68필지의 이주단지, 2008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40필지의 상가단지과 주차장, 버스회차지를 조성했다.

3단계 사업인 정비 및 철거정비복원은 이 지구 내 건축물 91개 동 가운데 자진이전과 부분 철거를 마친 83개 동이 위치한 곳을 우선 복원하고 무등산 고류수층을 심었다.

문제는 8개 동 10여 명의 주민들이 여전히 철거에 반대하며, 법적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점이다. 시는 광주지방 법원에 제기한 명도소송 결과가 이달 말께 나오면 이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전체적인 일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시와 광주시도시공사는 기존의 273개 면 주차장을 448개 면으로 확장 이전해 생태주차장으로 조성했으며, 증심사천 주 오염원이었던 상가들을 철거, 정비한 후 공원 경계 쪽에 40개 동의 쾌적한 단지로 탈바꿈시켰다.

증심교 하단 식당 밀집지는 만남의 광장과 휴게공간 개념을 도입해 정비했고, 증심교 상단 주택 밀집지역과 증심천의 발원지인 덕산골 계곡과 약사사 계곡 하천도 식당이 입주하기 전 본래의 하천으로 복원했다.

또 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나 배치, 형태, 색채는 물론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규제해 무분별한 건축물이나 광고물 난립을 근본적으로 막았다.

증심사지구는 이번 자연환경복원 사업을 통해 연간 700만여 탐방객이 이용하는 광주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철거에 반발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과의 마찰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주단지에 들어서는 음식점 등 상가나 주택 옥외광고물이나 가로시설물 등이 주변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인지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연말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은 물론 외지 탐방객들도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무등산을 탐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10개郡 원어민 강사 1명도 없다

도교육청 국감 자료

전남지역 일선 학교는 물론 학원에 서조차 원어민 강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10곳중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된 곳도 4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학원에서조

차 외국인 강사 자제가 없는 군 지역도 10곳에 달했다.

14일 전남도교육청이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일선 교육청에 등록된 외국 인 강사는 158명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적었다.

전국 1만4천873명의 1.1%에 불과했으며 서울(5천786명)만을 놓고 비교해도 2.7%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담양, 곡성, 신안, 완도 등 농어촌 지역 10개 지역은 원어민 강사가 단 1명도 없다.

전남도내 초·중·고교 838곳 중에 원어민 교사가 있는 곳은 322곳으로 38.4%에 불과했다. 원어민 교사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831명에 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토양 '양호'

보건환경연 80곳 조사

광주시가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토양오염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공장, 공업 지역을 포함한 80개 지점에 대해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산도는 6.5로 나타났으며, 중금속 중에서 아연과 나쁜 토양오염 우려 기준 '가' 지역의 5분의 1 이하, 그외 중금속은 10분지 1 이하 수준으로 매우 낮게 조사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제1전투비행단 15만 시간 무사고

15년에 걸쳐 달성

지구 2,768바퀴 거리

공군 제1전투비행단(단장 양철환)이 15만 시간 무사고 비행의 쾌거를 이뤄냈다.

14일 1전비에 따르면 지난 9일 강대근 중령이 T-50으로 안전하게 비행을 마치면서 15만 시간 비행안전 기록을 세웠다.

이번 기록은 1994년 10월 20일 부터 15년에 걸쳐 T-50, T-38, F-5E/F 기종으로 달성한 것이

다. 비행거리로 환산하면 1억800만km로, 지구를 2천768바퀴 돈 것과 같다.

양 단장은 "모든 장병과 군무원이 뜻을 모아 세계 최고 수준의 비행훈련과 전투수행 능력을 쌓아온 결과"라며 "공군과 함께 출범한 최초의 비행단으로서 창설 60주년을 올해 기록을 달성해 더 뜻깊다"고 말했다.

1전비는 15일 이명남 남부전투사령관(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록 수립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Weather forecast for today (October 15, 2009) including a map of Korea, temperature table for various cities, and a 7-day outlook.

Weather forecast for the Gwangju National Sports Complex (16-17 Oct) with a focus on the absence of rain, including a table of precipitation and temperature.

Advertisement for Gwangju Shinshin University (광신대학교) featuring a photo of students and contact information.

Large advertisement for 'Daeoondolnara' (대오온돌나라) featuring furniture, home appliances, and a YHB (Yonghyang Bank) promotion.